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우신 드보라는  
여자로서 남자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왕권과 머리의 권위 아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합당한 질서 안으로 이끌었음

성경: 사 4-5장

- I.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보여 준다. 우리가 우리의 왕과 주님과 머리와 남편이신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커다란 사악이자 커다란 악행이다 — 삼상 8:7, 12:17, 19, 사 21:25, 17:6, 눅 19:11-14, 렘 11:13, 겔 16:24.
- A.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과 주님과 머리와 남편으로 삼고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복이 되심으로, 우리를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수 있다 — 마 2:2, 요 1:49, 히 7:2, 사 32:1-2, 33:22, 빌 2:9-11, 롬 14:6-9, 고후 4:5, 골 2:19, 엡 1:22-23, 고후 11:2-3, 호 2:19-20, 민 6:23-27, 시 128:5, 48:2.
- B.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
1. 우리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서, 즉 우리의 권위이시자 우리의 주권자와 왕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다.
  2.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곧 더 큰 솔로몬이신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곧 참이삭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다윗의 자손)으로 취할수록 더욱더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을수록 더욱더 그분을 우리의 복(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완결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라는 복이다 — 마 1:1, 갈 3:14, 16, 29.
  3.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생명의 성장)와 기쁨(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위해 우리를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복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항상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한다 — 빌 1:25, 벧전 3:9.

## 사사기

### 메시지 7 (계속)

#### II.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드보라는 여자로서 남자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왕권과 머리의 권위 아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합당한 질서 안으로 이끌었다 — 사 4-5장.

- A.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하였다(사 4:1). 따라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는데, 그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였다. 야빈은 쇠로 만든 구백 대의 병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 사 4:2, 3하.
- B. 사사기 4장의 때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 주신 인도 직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인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 이례적이고 흔치 않은 일을 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인을 세우신 것에 의해 이스라엘의 상황 전체가 바뀌었다 — 사 4:4-5.
- C.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사 4:3상), 여신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다. 그녀는 드보라 야자나무 아래 앉아 있곤 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드보라에게 나아가 판결을 받았다(사 4:4-5).
- D. 성경에서 합당한 여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왕과 주님과 머리와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러한 위치에 머물러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아내라는 자신의 위치에서 떠나 수많은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련한 상황과 가련한 상태로 떨어졌다.
1.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그의 인생의 전 기간 동안 나실인이었다. 나실인은 머리를 길게 자라도록 두어야 했는데, 이것은 나실인이 주님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 능력이 있다 — 민 6:5, 사 16:17, 고전 11:3-6, 10, 15.
  2. 그러나 들릴라는 ‘삼손의 혼이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되도록’(사 16:16) 날마다 말로 조르며 재촉하여 그의 힘의 비밀을 자신에게 말하게 하였다. 사탄의 지치게 하는 전략으로 인해(단 7:25) 삼손은 사탄의 덫에 걸려들었다. 삼손은 들릴라에 의해 머리털이 밀렸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혔으며, 자신의 나실인으로서의 헌신, 능력, 거룩하게 됨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 잃었다.
  3.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 망쳐질 것이다. 우리(특히 결혼한 자매들—엡 5:22-24)에게는 복종적인 영과 위치와 분위기와 의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와 우리의 장래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7 (계속)

- E.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를 읽어 볼 때 우리는 그녀가 능력과 역량과 통찰력과 예지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렇게 탁월하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매우 복종적이었다. 하나님은 그녀를 인도자가 되게 하셨지만, 그녀는 합당한 질서를 지켜 바락을 자신의 덮개로 삼았다 — 사 4:6-9, 비고 고전 11:3-6, 10.
- F.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드보라는 남자가 자신의 덮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G. 뛰어나고 비범한 이 여인이 여자로서 출신하여 남자에게 복종하자, 온 나라에 뛰어나고 합당한 질서가 있게 되었다. 모든 인도자들이 앞장섰고, 온 백성이 따랐으며, 군대가 편성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합당한 위치로 돌아왔다.
- H. 따라서 드보라는 자신의 노래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 백성이 기꺼이 자신을 드렸으니 /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 ... / 그때 귀족들 중 남은 이들이 내려왔고 / 여호와의 백성이 나와 함께 용사와 맞서기 위하여 내려왔다네.” — 사 5:2, 13.
- I. 교회 안에서 자매들의 첫 번째 기능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복종하는 것이다. 자매들이 이 공과를 배울 수 있다면, 교회는 강하고 풍성하게 되며 새로워질 것이다.
  - 1. 복종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공급과 은혜를 누림과 십자가의 운행과 자아를 부인함이 요구된다.
  - 2.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들은 복종으로 충만하다. 온 일생 동안 복종적이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명을 주셨다 — 빌 2:5-11, 히 5:7-9.
  - 3. 한 자매가 어느 형제와 결혼하는 것은 그녀가 기꺼이 자신을 드리며 “저는 기꺼이 복종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 어떤 자매가 결혼하려고 하는 대상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뜻을 마음에 한 번도 품은 적이 없다면,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지 않고 그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엡 5:22-23, 뵤전 3:1-6.

### III.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일어났다 — 사 5:7.

- A. 교회생활이 실지적인 면에서 고봉에 도달할 때, 각 교회 안에는 틀림없이 몇몇 참된 어머니들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라고 말하였다.

## 사사기

### 메시지 7 (계속)

1. 사도 바울은 어머니가 필요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부담을 짊어지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을 어머니로서 돌봐 주는 자매가 없다면, 그들은 매우 슬플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어머니들의 돌봄이 필요하며, 그들의 돌봄은 우리에게 참된 양육과 참된 보호가 된다.
  2. 바울에게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은 로마에서 교회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생명의 전이(轉移)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생명의 전이를 갖는 최상의 길은 바울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바울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 고전 2:2.
- B.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책, 곧 타고난 생명이 아닌 전이되고 변화된 생명에 관한 책이다. 본래 요한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고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생명을 해방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생명을 분배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그리고 그들과 그리스도의 생명 연결에 의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있었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 — 요 19:26-27.
- C. 우리의 첫 번째 인간관계는 육체에 속한 것이지만, 두 번째 인간관계는 영에 속한 것, 곧 전이된 생명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두 번째 출생을 가졌기 때문에(요 3:6), 분명 두 번째 인간관계, 곧 참자매들과 참어머니들과의 두 번째 가족 관계를 갖고 있다.
- D. 자매들이 그들의 기도와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참어머니들이 되려고 한다면(고후 4:13),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많이 자신 안에 있는지를 깨달을 것이다. 영 안에서 좋은 자녀들을 가지려고 할 때 그들은 극도로 폭로될 것이다. 나아가, 자매들은 몇몇 영적인 자녀들을 돌봄으로써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 E. 자매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생활을 위하는 데 진지하다면, 그들 자신을 섬기는 간호사들로, 곧 참된 병원인 교회 안에서 간호의 돌봄을 제공하는 교회의 간호사들로 여길 필요가 있다. 모든 자매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매들이 되고 사랑이라는 가장 뛰어난 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되어, 영적인 생활과 교회생활에서 궁핍한 사람들과 더 어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에게서 축복과 성장과 영성과 참된 누림을 얻는 최상의 길이다 — 롬 16:1-2, 13, 사 66:12-13, 고전 12:31하, 13:4-7.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7 (계속)

#### IV. 성경은 그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마음에 큰 결심’이 있었고, ‘마음에 큰 성찰’이 있었다고 말한다 — 사 5:15-16.

- A. 큰 결심을 하는 것은 확고한 결정을 하는 것이며, 큰 성찰을 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과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신부를 예비하며 그분의 왕국의 출현을 이끌어 오는 그분의 최선의 회복을 위해, 주님을 향해 살고 주님을 살아 내려는 것이다 — 고후 5:14-15, 롬 14:7-9, 계 19:7-9.
- B.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1943년에 일본 헌병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중에, 주님은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이 꿈에서 리 형제님은 새벽에 동이 트는 것처럼 날이 밝아지는 것과 함께, 매우 밝고 매우 곧은 대로가 끝없이 뻗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주님의 회복에 대로와 떠오르는 해와 끝없는 장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비교 잠 4:18.
- C. 우리는 드보라가 그녀의 노래 마지막에 묘사한 이들과 같이 되기를 열망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이 영광스럽게 끝맺는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 힘 있게 돋는 해와 같게 하여 주십시오.” — 사 5:31.
1. 해가 힘 있게 돋는 것은 해가 밝고 찬란하며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교회들이 결심과 성찰과, 해처럼 솟아올라 빛나는 것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분명 주님을 그들의 승리로 누릴 것이다.
  2. 의의 해이신 치료하시는 그리스도로 재조성된 이기는 이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 말 4:2, 눅 1:78-79, 마 13:43.